바위솔 번식과 재배기술

▲ 바위솔 자생지 군락 (완도 해안가, 사진 박재옥)

송 정 섭
농업연구관, 이학박사
(031-290-6203,
songjs@rda.go.kr)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키가 작고 다육성이라 화단보다는 오히려 분화나 분경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바위솔, 요즘 잎들이 곱게 단풍들어 있다. 잎이 선인장이랑 같은 다육성 식물이라 건조에 매우 강하다. 이처럼 바위솔류는 키가 작고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경에 기초소재로 쓰인다. 물론 옥상정원이나 일반 주택 화단의 조경석 틈새 식재용으로도 아주 잘 어울린다. 특히 선인장 같은 것은 추위에 약해 제주 남부 일부를 제외하곤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노지에는 심을 수 없지만 바위솔류는 어디서든 월동이 가능하여 그만큼 이용 폭이 넓다.

1. 종류 및 생리생태

바위솔류는 돌나물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주로 아시아 동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난장이바위솔(*Orostachys sikokiana* Makino), 바위솔(*O. japonicus* A. Berger), 둥근바위솔(*O. malacophyllus* Fisch.), 애기바위솔(*O. filifera* Miq.), 좀바위솔(*O. minutus* A. Berger), 연화바위솔(*O. iwarenge* Hara) 및 모란바위솔(O. saxatilis Nakai)이 자생한다. 바위솔류는 CAM식물(주로 야간에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부피

표1. 자생 바위솔의 종류와 특성

종 류	학 명	분 포 지 역	개화기 (월)	화 색
바위솔 (오송, 지붕지기)	*O. japonicus*	전국(산지 바위 위, 인가옥상)	9	백색
난쟁이 바위솔	*O. sikokianus*	심산지역의 바위 위	9~12	백색, 연분홍
둥근바위솔 (응달바위솔)	*O. malacophyllus* =*O. aggregeatus*	제주도, 중북부(산지 암석 위)	8~9	백색
애기바위솔	O. filifera	북부산지	9~10	홍자색
좀바위솔	*O. minaus* =*Cotyledon minuta*	중, 북부(산지 암석 위)	9~10	홍자색
모란바위솔	*O. saxatilis*	북부(산지 암석 위), 특산식물		
연화바위솔 (사발꽃, 바위연꽃)	*O. iwarenge*	제주도 해안가의 건조한 바위틈	10~11	백색

▲ 좀바위솔

▲ 난쟁이바위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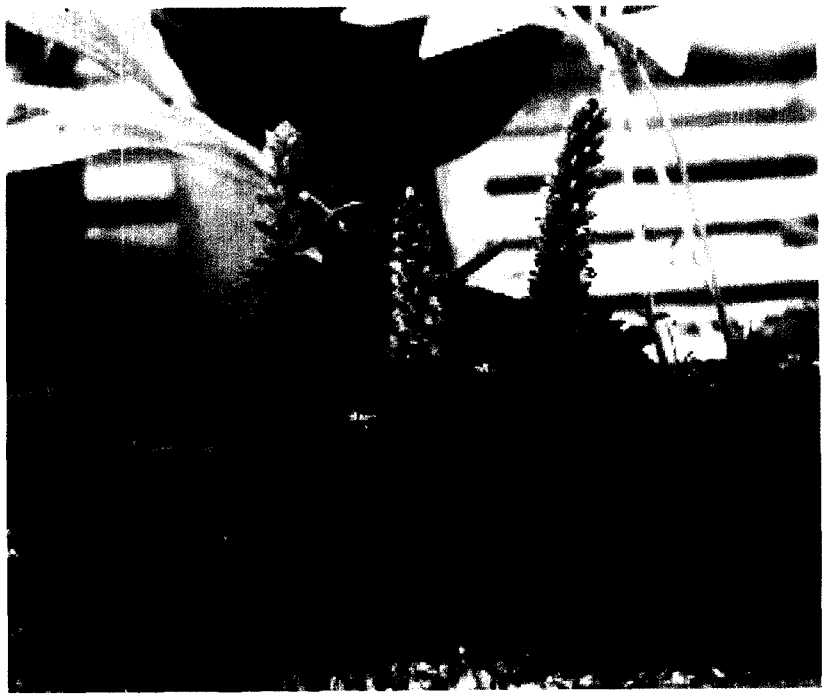
에 비해 표면적이 적어 최대한 증산이 억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꽃은 9월 이후 피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가운데서 꽃대가 굵고 길게 나오면서 흰꽃들이 총생으로 다닥다닥 붙어 핀다. 연화바위솔의 경우 장일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된다.

2. 번식 및 재배

가. 번식

바위솔류는 영양체 번식보다는 종자에 의한 번식을 주로 이용한다. 종자는 꽃이 진 후 화병이 갈변된 후 채취하여 햇볕이 안 드는 시원한 곳에서 말린 다음 충실한 것들을 잘 골라 냉장고에 보관한다. 돌나물과 식물은 종자가 매우 작은 극미립종자이다. 따라서 파종도 미세종자 파종을 한다. 미세종자는 관리의 편의상 상자나 화분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파종용토는 물빠짐이 좋고 통기성이 좋으면서 보수력이 있고 적당한 거름기가 있는 상토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종자가 미세할수록 토양에 거름기의 함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파종용토는 상토 : 피트모스 : 펄라이트 : 버미큐라이트(1:1:1:1)의 혼용배양토가 좋다. 씨앗은 같은 굵기의 모래나 상토를 3배정도 혼합해서 종이 위에 얹고 가볍게 털어 주면서 고루 뿌린다. 파종 후 복토는 하지 않고 씨를 뿌린 위만 가볍게 눌러준다. 광발아 종자로 광조건하에서 온도는 15~25℃에서 90%이상 발아된다. 관수는 씨앗이 빠져나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면관수 혹은 분무관수를 한다. 충분히 물을 준 다음 위를 비닐로 덮어 두어 습도를 유지시켜 준다. 발아후에는 파종상이 고온다습하게 되면 유묘가 연약하여 입고병(모잘록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종자가 약 70%정도 발아하면 곧바로 비닐을 걷어준다.



▲ 바위솔을 이용한 석부작

나. 재배관리

바위솔속 식물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대단히 강하다. 주로 비옥도가 낮은 토양에서 자생하고 내건성 및 내한성이 강하다. 바위솔은 산지나 바위 위 또는 한옥의 기와지붕 위와 같은 곳에서 자란다 하여 와송, 와연화, 와화, 와상, 옥상근무초, 지붕지기 등의 속명을 갖고있기도 하다. 둥근바위솔은 주로 바닷가나 산의의 바위에서 자생하며, 연화바위솔은 바닷가, 특히 제주도 해안 절벽 암석 위에서 많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위솔류는 내건성 및 내한성이 강한 반면 내음성 및 내습성이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배용토는 물빠짐이 좋은 배양토를 사용하여야 하고 직사광선이나 광이 충분한 장소에서 재배하여야 한다. 관수는 과습하지 안고 건조하게 관리하여주고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시 주의를 요한다.

3. 이 용

바위솔류는 잎과 식물체의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분식용 또는 건조지 화단용으로 이용가치가 매우 높다. 옥상이나 석부작 등 광이 충분한 곳에서 장식용으로 매우 좋으나 광이 충분하지 않은 실내나 건물에 가려진 응달에서는 적응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양지쪽에서 자라면 잎이 치밀해지면서 상향성으로 충실하게 자라는데, 반음지나 음지에서는 키가 너무 도장하거나 늘어지며 아래 잎들은 하향성으로 쳐져 관상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바위솔류는 광이 충분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분에 심어 실내에서 기를 때는 어느 정도 보조광을 쪼여줄 필요가 있다.